

초등 고학년 독서단원 독후활동지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초등 5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소문 바이러스 독서 수업 지도안



소문 바이러스

글 최형미 | 그림 이갑규

2017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지원사업 선정작

2018 아침독서신문 추천도서

주제어: 질병, 바이러스, 소문, 가짜뉴스

대상: 초등 5학년

교과연계: 5학년 1학기 국어 1. 인물의 말과 행동
5학년 2학기 국어 1. 문학이 주는 감동
5학년 2학기 국어 7. 인물의 삶 속으로



소문 바이러스

글 최형미 | 그림 이갑규

출판사 킨더랜드 | 정가 11,000원 | 분량 168쪽 | 대상 초등 고학년

학교 뒷산에 조별 숙제를 하러 갔다가 들풀의 꽃잎을 먹었던 제훈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교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를 뒤에 제훈이가 쓰러질 때 실랑이를 벌이던 세나도 쓰러지고, 손목에 붉은 반점이 발견됩니다. 얼마 뒤에 목에 붉은 반점이 생긴 성수가 교실 안에 홀로 갇혀 있다가 병원에 가자,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지고 4학년 4반 교실은 폐쇄하고 소독하게 됩니다. 붉은 반점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은 병원에 격리되어 검사를 받게 되고, 만나지 못하는 반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붉은 반점 전염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자 텔레비전에서는 보도가 계속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과연 붉은 반점 전염병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독후활동



책 속으로

- 붉은 반점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 붉은 반점 전염병에 대한 대처
- 텔레비전에 나온 붉은 반점 전염병

창의융합

-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토론&논술

-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
- 소문 바이러스와 가짜 뉴스

독서 전 ①

제목, 표지,
머리말 살피기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구분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생각	
느낌	
궁금한 점	

(2~4) 『소문 바이러스』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제훈이와 세나, / 그리고 성수에게서도 발견된 붉은 반점
이수네 반 친구들에게서 시작된 정체 모를
질병과 끝없는 소문이 학교와 도시를 멈추게 / 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친구들과 함께 오른 뒷산에서 이 모든 것이 /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2. 어느 날 갑자기 ‘이수네 반 친구들’에게 생긴 일은 무엇인가요?

⇒

3. ‘이수네 반 친구들’의 학교와 도시를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

4. ‘이수네 반 친구들’이 함께 오른 뒷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예상하여 써 보세요.

⇒

5.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볼 때, 이 동화의 핵심적인 소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6. 책에 실린 작가의 말(164~165쪽의 글)을 읽고,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에 대해 파악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가 갖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

다음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바이러스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virus)'에서 유래된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이다. 바이러스는 막대나 공 모양의 아주 단순한 모습이며,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질인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원시적이긴 하지만 생명체의 모습과 닮아 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생리 대사 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먹이를 먹거나 몸집을 부풀리는 생리 대사 작용 없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후손을 복제해 낸다. 또한 다른 생명체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지 못하고,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 등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 바이러스의 이런 증식 작용은 침입한 세포를 파괴하여 병을 일으키며, 이것을 '감염'이라 부른다.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감염되는 숙주에 따라 크게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곤충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로 나뉜다. 이 중 인간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전부 동물 바이러스이다.

1. 바이러스와 생명체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해 보세요.

닮은 점	다른 점

2. 바이러스의 감염은 어떤 뜻인지 쓰고, 인간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쓰세요.

⇒

독서 중 ①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소문 바이러스』를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붉은 반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 각각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쓰고, 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대처를 정리해 보세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의 증상	주위 사람들의 대처
 <p>제훈이</p>	<p>들꽃의 꽃잎을 먹었다가 받았던 제훈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에 온통 땀범벅이었다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움켜쥐고 교실 바닥에 쓰러졌다.</p>	
 <p>세나</p>		
 <p>성수</p>		<p>아이들이 성수에게서 멀어지려고 도망쳤고,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바뀐 성수는 교실 안에 홀로 갇혀 있다가 병원에 갔다.</p>
 <p>이수</p>		
 <p>학교 할아버지</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이들의 입은 새털처럼 가볍다고요. 조사가 시작되면 아이들로 끝나지 않아요. 몹시 시끄러워질 거예요. 학교는 분위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병원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표정에 머리가 허연 아저씨의 표정도 변했다. / “정말 곤란합니다. 흔히 걸리는 병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희도 방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서둘러 주십시오.” / 아저씨의 말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란스럽던 교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나) 교문 앞에 도착하니 교장 선생님이 무리 지어 있는 엄마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엄마들이 출근하는 교장 선생님을 붙잡은 모양이었다.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들이 이러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믿고 돌아가 주세요.”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쉬쉬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었어요?” / 어느새 엄마들 틈에 섞인 수현이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젯밤 엄마에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도 수현이 엄마였다.

“맞아요. 이게 숨긴다고 될 일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학교에 와도 되는 거냐고요?” / “교장 선생님, 이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반에서 세 명이나 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 (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교장 선생님 :

아이들의 입이 가벼워서 조사가 시작되면 몹시 시끄러워질 것이고,

② 머리가 허연 아저씨 :

흔히 걸리는 병이 아닐지도 모르고,

2. (나)에서 ‘엄마들’이 ‘교장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며 묻고 있는 내용을 모두 쓰세요.

⇒

3. 윗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사로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을 걱정했고, ‘엄마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은산을 덮친 붉은 반점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집중 탐구? 제목이 엄청 심각해 보였다. 평소라면 보지 않았을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이수 역시 붉은 반점의 정체가 궁금했으니까.

양복을 입은 몇몇 아저씨들은 붉은 반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놓았다. 내과 의사도 있었고, 피부과 의사도 있었다. 또 변호사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는 아저씨도 있었다. /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면 아저씨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했다. 아저씨들 모두 심각해 보였다.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붉은 반점은 엄청 큰 전염병인 것 같았다. 그 의사는 침을 튀기며 인류에게 닥친 재앙이라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전염병 창궐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 가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붉은 반점 공포로 얼어붙은 은산 경제’였다.

“전염병이랑 경제도 관련이 있네.” / 이수는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리모컨을 침대 바닥에 내려놓았다.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은산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자 주변 도시의 수많은 상점 주인들까지도 울상입니다. 어떤 상점 주인은 월세도 못 낼 지경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이 프로그램 역시 심각했다. 경제 전문가라는 아저씨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몇십억 아니 몇백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몇백억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수는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1. (가)와 (나)의 텔레비전에서 나온 붉은 반점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써 보세요.

(가) 은산을 덮친 붉은 반점 집중 탐구	(나) 붉은 반점 공포로 얼어붙은 은산 경제

2. 윗글의 텔레비전에서는 붉은 반점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텔레비전의 정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

다음은 『소문 바이러스』의 본문 일부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했다. 생업도 포기한 채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불투명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은산에 넘쳐났다. 당연히 원망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병은 관심 밖이었었다. 대체 왜 나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가 중요했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 병에 왜 하필 내가 걸린 것인지가 중요했다. 혹여 누군가에게 옮았다고 생각하면 옮긴 사람을 혼내 주고 싶어하기도 했다.

인터넷에도 이상한 글들이 많이 떠돌았다. 은산과 가까운 옆 도시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의 실험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고, 어떤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일부러 질질 끌고 과장하는 거라는 소문도 있었다.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분일 때가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누군가 책임지고 원망과 분노를 다 받아냈으면 싶은 날. 오늘이 모두에게 그런 날인 것 같았다.

1.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은 전염병에서 온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소문에서 온 것이다
근거	근거

② 소문 바이러스와 가짜 뉴스

다음은 <경찰,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8건 검거, 20건 수사 중>이라는 뉴스 기사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 가짜 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 보세요.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 수집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고 퍼뜨린 20건,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7건, 또 스미싱 범죄 한 건을 비롯해 모두 28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을 추적해서 4명을 입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가 적혔습니다. 특정 보건소와 병원도 언급됩니다. 경찰 내부 보고 양식을 본뻗지만 20대 A씨가 장난으로 만든 허위 정보입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남 창원 의 한 요양 병원에서 감염 의심 환자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회사원 B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B씨와 이를 유포한 C씨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 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8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입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제 없는 신종 코로나, 올바른 예방법은>이라는 뉴스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외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루 평균 약 3,000여 번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한다. 손은 3시간만 씻지 않아도 세균이 26만 마리가 생성되는 만큼 손 씻기는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이다. 실제 손 씻기는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21%까지 감소시키고, 기타 감염 질환을 약 50~70%를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손바닥은 물론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또 손으로 입이나 코 등 감염이 쉬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가구나 손잡이 등의 딱딱한 물체에서 약 24시간 서식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리모컨 등 생활용품의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 환기를 자주 시키고 적절한 습도(50~60%)와 온도(19~21도)를 유지하는 것도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전화 031-919-2734 | 팩스 031-919-2735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12 3층
blog.naver.com/kinderdal | 인스타그램 @kinderland_bandal